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새 정부 안심(安心) 보육 추진방향

김현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13년은 0~5세 숲 계층 보육·양육 지원의 틀을 확립하고 “보편적 복지”의 새 場을 여는 첫 해이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인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애 첫 단계인 영유아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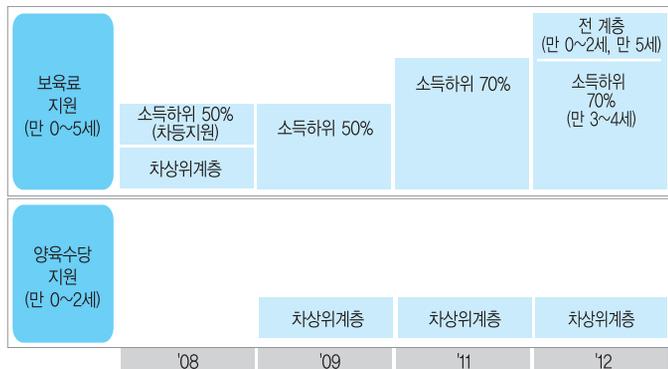
정부는 ▲0~5세 보육·교육 완전 책임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주요 정책으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안심(安心) 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1. 그간 성과와 현 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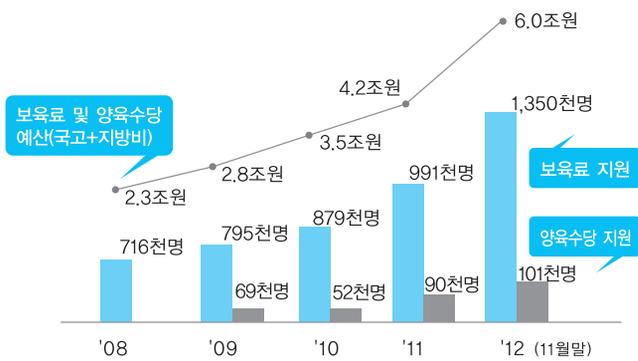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지원함에 따라 수혜대상 아동 수는 '12년 145만명에서 '13년 258만명으로 늘어났고 예산도 '12년 6.0조원에

서 '13년 8.6조원으로 증가하였다.

'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09년 3.68점(5점 만점)에서 '12년



[그림 1] 연도별 지원대상 확대 추이



[그림 2] 재정 투자 및 지원 아동 확대

3.70점으로 상승되었고 90% 이상의 부모가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유아 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needs)와 기대치 상승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정부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2. 정책비전 및 방향

‘아동이 행복한 보육·양육 환경 조성’을 정책비전으로 하여 저출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급자 중심 양적 확충보다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수요자인 아동의 건전한 발달·부모의 만족도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이다(그림 3 참조).

3. 주요 정책과제

가. 국가가 책임지는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1) 보육·양육 전(全)계층 지원 내실화 및 안정적 정착

우선 금년 3월부터 추진 중인 0~5세 보육·양육 전계층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09년에 계측된 표준 보육비용을 재조사('13년)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 산정 기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15년)하여 안정적인 보육·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표 1 참조).

3-5세 누리과정 단가: ('12) 17.7~20만원
→ ('13) 22만원 → ('16) 30만원



[그림 3] 바람직한 보육·양육 지원 방향

〈표 1〉 보육료·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개요

단위: 만 원

보육료			양육수당		
연령	지원 대상	지원단가	연령	지원 대상	지원단가
만 0세	전계층	월 75.5	12개월 미만	전계층	20
만 1세		월 52.1	12~24개월		15
만 2세		월 40.1	24개월~만 5세		10
만 3~5세		월 22			

2) 추가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 시설 이용 부담 경감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16년 30만원)에 맞추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의 추가 보육료를(약 3~5만원) 단계적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등 기타경비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비용 수납 한도액, 특별활동 적정관리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민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확충

1)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 등 확충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 어린이집을 향후 5년 간 총 2,175개소¹⁾ 신규 확충하여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12년, 약 2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국공립 75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공공형 700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게 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개선하고(놀이터, 보육실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 확대²⁾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일시보육 서비스 실시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³⁾로 확대·개편하는 등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에 확충하여 영유아 가구를 둔 부모는 누구든지 쉽게 시설보육 뿐 아니라 가정양육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에게 긴급·일시적인 보육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

1) 국공립 675개소: '13년 75개소, '14~'17년 매년 150개소(신축 50 + 전환 100개소)

공공형 1,500개소: '13년 700개소, '14~'17년 매년 200개소

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단독설치(2~3억원), 공동설치(5~6억원), 인건비(100→120만원)

3)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는 보육·양육정보제공, 일시보육, 부모교육, 가정 내 프로그램 제공, 상담·육구 조사, 장난감 대여 등이 있음.

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1) 어린이집 품질 관리 기반 조성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자격기준, 부채요건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하고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성과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인증 총점 및 영역별 점수 공개 등 평가인증 결과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2) 어린이집 정보 공개 확대 및 회계 투명성 제고

금년 12월부터 정보공시제를 도입하여 어린이집 기본 현황, 보육 과정, 경비, 예·결산, 건강·안전 사항 등을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명단(대표자, 위반 내용, 처분 사항 등)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시설운영, 보육료 수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3) 급식·안전 강화 및 부모 참여 확대

식약처와 협력하여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15년

까지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기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어린이집까지 적용하여 급식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 시 어린이집 시설폐쇄, 운영정지 등 처분 신설, 10년 간 어린이집 근무 및 설치제한 등 처벌을 강화하고 시·군·구별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 운영 상태를 확인·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보육교사 수당 지원을 확대⁴⁾하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보육교사 임금 등 처우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육 실습 및 자격 취득 교과목·학점 기준을 강화하고 보육 수요에 변화에 따른 적정 공급 수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양성 체계 재설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라. 보육·유아교육 발전방안 마련

현재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전문가, 부모, 현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보육·유아교육 통합 추

4) 0~2세 교사 5만원 → 12만원

5) '13년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를 보조교사 채용에 사용

진위원회'를 구성·운영 증으로 보육·유아교육 발전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향후 학부모 여론조사,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맺는말

보육정책 등 저출산 대책의 성과는 경제적인 요인 뿐 아니라 체감도 제고 등 사회적인 인식변화

가 수반되어야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금년 0~5세 보육·양육 전계층 지원을 시작으로 지원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